

선생님께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내주신 여학생 감사리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학생들 뜻드려 정감 죄송합니다.

잔 지내고 계신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늦게 보인 아쉬움도 알고 분만도 알았지만, 선생님을 생각하면
몹시 아음이 아웁니다.

토드름은 여학생들 정치진출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선생님의
주제가 더욱더 진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느님도 한도 알기는 했으나 뉘르심은 선생님께서 감동의 (모양)
되자바 망사나보니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루어진 안락짓같이 언뜻언뜻 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정치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순례를 합니다.

학생운동, 재야사회운동 ^{재야활동} 하면서 소위 메이저 캠퍼스 학생들의
정치적, 학업주위에 기인한 뜻하는 관습주의와 영타서 광학현상에
기인한 광학파 비선형을 보면서 상회도 많이 입었습니다.

소위, 인터넷등의 이거 개인주위에 가담사아리 나온 자명이있을까요.
이들 광학이 하서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느끼며,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도 조기 나노리는 광학은 재야사회 광학 (비리이이이) 진정한

사실들과 함께 하면서 많으로도 끊임없이 싸우며 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D.J 선생의 기기는 더욱더 신중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그때에 주어진 일에 집중하다 보니 여학생들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나 여성정치운동에 매진하려 합니다.

여성정치수도 광학이 보인 것은 광학과 가리로 여학생에서

상회지, 리정은 변해가는데 광은 리지만 기여하도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위원회에서 있거나 대외협력부 당장도 어떻게 받았지만
지금도 훨씬 아름답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개혁신당 여성위원 창당하기 것은 우리 희망입니다.
물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몇 개월동안 안성남, 한영애, 한광라, 이상덕,
주인사, 유진과 등등 60여명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여성위원 만드는

해서 구성되었고 지금은 선거라도 내리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있어 너무 집중되어 있고 어른들사이의 관계도 신경쓰는 등
힘은 있지만 어느 집안보다 비전이 있다는 것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당이 20% 비례비표로 한당제는
나쁘지 않은 것도 미흡하기 하나 성과입니다.

신생당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관심과 진양은 가려서 계단리
전혀 많 것이 없어 조심스럽긴 하나,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하신 것들이
적어 보게 합니다.

우리당은 95년 초 자라게 강 선거를 앞두고 전지전당 대회에서
광우리 앞으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지도부와 취지는 정비하고 대비해야 하며, 권력권으로
7.8월사이 유력합니다.

지금 대우로의 제자, 제보는 진양대회는 제정하는 전직전직과 강화
작업이 되어있고, 급속한 합동연령의 통일작업이 관망입니다.
개혁신당은 1월 28.9일 총회를 갖고 대중앙안을 논의한 예제가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전지전당대회는 타라는 쪽이 주권이며, 지도부 문제는
이 회가 당권으로서 부패하기 앞은 상태에서 노회로의 전국
회위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종계보자들은 정거하리, 제하는 확장시켜
해 볼만도 하다는 것 같습니다.

무엇도 아직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진 바는 없습니다.

여성리노적 문제도 다시한번 거론되고 있고, 후배가 돼서 있는 사람들은
간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 이문제는 신념보여 결단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살면서 입장을 이야기 하기 어렵군요.

나만 제가 깊이있게 검토하시길 바라는 것은

D.J.신씨의 관계나 문제점을 딱히 안고 있거나 이는 두통하고
제정하면서 귀속하려는 것은 기획하는 쪽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과 남성에게 비해 연약한 편이었기 속에서 여성정치의

지침이 보다 넓어질수 있는 방안은 주체와 함께해야 하리 않는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바가 많이 높아졌으나

큰 틀에서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여성후보는 단언하더라도
관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신념과 신념도 해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주만 무한정 같아 아무리지않게 합니다.

전당대회로 큰연장 줄지아는 바와 또 하나 불어 비관의 눈물들이 전당
더욱 많이 있다는 것 같아하시니, ^{개혁당}여러가지 심사숙고 하셔서 중대한 지엄한
사안이 제정안을 가지고 귀속하시기 바랍니다.

1984. 1. 6.

양 정욱 드림.